

WEC 집행이사회 카이로에서 개최

로마, 2007 총회 개최지로 선정

WEC 2002년도 집행이사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난 10월 20~24일간 개최되었다.

금년 집행이사회에서는 2007년 개최될 제20차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 개최지를 결정하는 표대결에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이태리 로마와 캐나다 몬트리올이 경합을 벌였으나, 국가별 기회균등 및 대륙별 순환 개최를 주장하며 범국가적인 외교공세를 펼친 로마가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다.

WEC 회원국 대표들은 2002-2004 기간 본부에서 수행할 주제별 연구프로젝트 및 통계자료 작성 등 12개 과제를 계획 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3년도 본부 운영예산 115만 파운드를 승인하였다. 한국의 2003년도 연회비 분담액은 약 6,000만원으로서 호주 이태리 멕시코 등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금년도 집행이사회에는 67개 회원국에서 3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Studies Committee 상임위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류지철 박사와 협의회 사무국에서 함종철 사무국장, 이성룡 차장이 참석하였다.

WEC 차기 집행이사회는 2003. 9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개최되며, 'Energy Drivers' 보고서 발표 및 중앙아시아지역포럼 등이 동시에 열린다.

WEC 아태지역포럼은 내년 2월 25~27일간 싱가포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정치적 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문영환 박사와 에너지관리공단 황규철 박사가 세션 좌장 및 세션 발표자로 각각 지명 추천되었다.

또한 2003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온실가스배출물거래"를 주제로 아태지역 에너지워크샵이 개최될 예정이며, '에너지시장개혁' 문제도 논의될 계획이다.

WEC 제19차 총회는 이미 2004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회조직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실현: 에너지부문의 기회와 과제" (Delivering Sustainabilit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Energy)를 주제로 하고, 경제·환경·사회 등 3개 부문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부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시드니 총회 참가에 필요한 논문발표자 및 세션참가자 선정은 2003년 중으로 결정되며, 기타 학생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전시회 참가 준비 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호주측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시드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APEC 에너지장관회의를 유치하여 동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Symposium on Energy Drivers

WEC는 수차례의 심포지엄과 조사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Drivers of the Energy Scene"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 에너지수급 전망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 (drivers)은 무엇인가?
- 사회·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에너지전망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가?
- 과거 에너지부문에 중단(breaks) 현상을 가져



- 은 요인은 무엇이었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 발전(evolution)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찾아내고,
- 예상되는 미래의 거시경제적 변수(macro-economic drivers)와 에너지부문의 중단현상을 가져올 요인은 무엇인가?
 - 기존의 에너지수급 전망 추세에 중단 및 피드백 요소를 외삽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 그리고 공급측 변수(supply drivers)와 수요측 변수(demand drivers)는 각각 무엇인가?

● Renewables Committee Meeting

- 發電부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준쿼타(PRS)를 지정하자는 국가별 찬반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요하네스버그 WSSD 회의에서도 에너지와 관련하여 논의된 핵심이슈는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쿼타 지정 문제였음.
- 일부 NGO들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위험(risk)과는 무관하게 보급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 WEC는 신재생에너지 쿼타 문제를 규제(regulation) 및 시장개편(market reform)의 틀 내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03년 6월경 'Handbook on Renewables Best Practices'로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 Egypt Energy Day 행사

- 이집트는 1992년 석유생산이 92만bbl/d에서 2001년 64만bbl/d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러

한 추세로 갈 경우 10년 후면 석유순수 입국으로 전락할 판이다. 반면, 대륙봉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2002년부터 LNG 형태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을 연계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Arab Gas Pipeline을 구축할 예정임.

- 주변국과 전력계통 연계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확장계획도 있음. 1998년부터 요르단과 500kV 송전망 연계, 2001년 3월에는 시리아까지 연장. 400kV로 알제리, 리비아까지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까지 연계하는 지중해 Power Pool을 구성할 계획임.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WEC 참여 활성화 논의

한국에너지협의회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12월 11일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선우현범 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하였다. 참석 위원들은 WEC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한국측 전문가들의 회의참석 장려방안, 2003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WEC 연구과제 참여 활성화는 사무국에서 소속 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경영인 조찬간담회나 세미나, 워크샵 같은 행사는 에너지공학회 등 타기관과의 공동 개최를 통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